

# 주일가정예배 순서

2020년 8월 2일 주일예배

인도자 : 가족 대표

**기 원** ..... **인도자**

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1-2)

삼라만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영적인 깨달음과 회개를 통하여, 성결한 자의 삶을 소망하고 또한 살도록 결단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결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363장** ..... **다같이**

1.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2.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3.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4.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마태복음 7:1-6 ..... 인도자

-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 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설 교 ..... “눈의 티를 빼주는 법” ..... 인도자

기 도 ..... 설교자

찬 송 ..... 221장 ..... 다같이

1.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귄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2.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3. 피차에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 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4.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 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1. 코로나 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눈의 티를 빼주는 법”

(마태복음 7:1-6)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거룩한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분노 금지(5:21-26), 복수 금지(5:38-42), 증오 금지(5:43-47)를 이야기했는데 이젠 비판 금지(7:1-6)를 말씀하십니다. 비판은 변질되고 썩은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1절)이란 말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7:12)를 말하는 황금률의 반명제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신이 비판 하던 것을 자신이 행하는 내로남불 형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혹독한 심판을 당 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2절). ‘비판’ 한다는 것은 곧 정죄(定罪)를 의미합니다. 정죄는 곧 심판인데, 우리는 그 누구도 이런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비판 하는 자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월감 가운데, 자기는 높이고 상대방은 깎아내립니다. 우리는 재판관이나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똑같이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비판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헤아림은 곧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준을 자신에게 들 이대 보십시오. 밋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인 다윗에게 선지나 나단이 찾아와 “가난한 자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자, 다윗은 그 부자를 정죄했습니다. 부자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았지만,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가로채고 남편을 죽게 했다는 점에서 다윗이 더 악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난과 비판은 악을 바로 잡을 수 없고 오히려 더 가중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비생산적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만약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면 잘못 볼 가능성은 훨씬 커집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3절). 이 비유는 반어적 비유입니다. 자신의 눈 안에 거대한 들보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타인의 눈에 있는 작디작은 티끌을 보고 교만하게 구는 것을 신랄하게 풍자합니다. 우리는 비판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타인이 잘못은 작게 봐야 하고, 자기 허물을 크게 봐야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의 잘못에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작은 결점을 가진 형제에게 관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의 작은 허물이라도 고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눈 속에서 들보가 있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타인은 자기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뒤에 회개를 통해

자기의 들보를 제거해야 합니다. 손을 정결하게 씻고, 형제와 신뢰 관계를 맺고, 기술을 축적한 뒤에, 비로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끌을 빼줄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6절). 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비판은 아니라도 분별은 해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 복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불신자가 된 개와 돼지를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충고를 해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잠 9:8).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 1) 집에서의 편한 복장 보다 단정한 복장을 입습니다.
- 2) 본인이 사용하는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 3) 온라인 예배는 10분 전에 미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배 화면과 볼륨을 준비합니다. 가급적 화면이 큰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 참여시에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말고 컴퓨터 같은 가장 큰 화면 하나로 함께 드립니다.
- 5) 주일 가정예배서를 이용하시는 가정은 미리 가족 수 만큼 순서지를 준비합니다. 설교는 설교자만 설교 요약본을 준비합니다.
- 6)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 7) 온라인 예배 참석과 이름을 남깁니다.
- 8)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 9) 코로나19사태의 퇴치와 치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